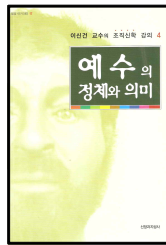


『예수의 정체와 의미』

이신건 지음

신앙과지성사. 2013. 10,000원. A5. 288쪽.

안 희 철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문의 여지없이 자명한 것인가? 실로 그러하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이들에게는 예수가 선생이요 구원자이며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토록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듣고자 예수에 대해 묻는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신건 교수의 “예수의 정체와 의미”는 그 질문을 다시금 문제 삼고 있다. 구태의연한가? 기

안희철 | 서울신학대학교 외래교수, 조직신학.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Dr. Theol.).

독론을 테마로 다루는 무수한 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않는 듯 보이는 이 질문을 왜 다시금 화두로 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의 책은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우리의 의심을 잠재우고 있다. 첫째, 이 책을 통한 기독교론 작업은 그의 “조직신학 강의” 시리즈 가운데 네 번째 책이라는 점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이 책이 우연히 기분에 따라 어찌다가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이미 이 시리즈 작업을 하기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작업이 꼭 필요하며 조직신학자들이 이러한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필자가 - 기억이 확실하다면 - 그의 학생이었던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다. 앞으로 세 편 정도의 작품들이 이어진다고 한다. 그가 조직신학 전체의 구조 속에서 얼마나 완성도 있는 교의학적 구조물을 건축할 수 있을지는 모든 것이 완간되고 나면 드러날 일이었으나, 그 도전의 성패와 무관하게 그 시작과 과정은 이미 조직신학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마치 신학자의 십자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뻔한(?) 질문들을 다시 다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필자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지점이 놓여 있다. 그는 지난 2000년 간 그리스도인들이 다뤄온 “전통적인 예수님 이해”를 그저 동어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그의 책 5쪽, 이하 쪽수만 표기).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때론 알려지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에 대한 이해가 때론 교리의 두터운 옹벽 속에 갇혀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 예수 이해는 이단과의 변증적 논쟁 가운데 기독교 정통을 지켜온 역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화석화되는 순간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로고스)과 너무도 다른 예수상(像)과 조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 책은 그러한 오류를 빚겨간다. 저자는 “실존적으로 고백하고 실존적으

로 만난” 예수님을 기독교의 출발로 삼기 때문이다(7쪽). 물론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던가, 혹은 현대주의에 치우친 해석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예수 이야기를 문제삼아 다루면서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전반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이러한 신학적 방법을 토대로 어떤 의미에서 예수의 정체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밝혀내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저자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책을 다른 무수한 기독교 관련 책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제시하는 세 번째 지점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것을 더할 수 있다면, 아니 적어도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예수의 정체나 의미에 관한 고착화된 의식이나 정형화된 사고를 깰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부류의 책들이 식상하게 느껴지는 독자들의 의심을 잠재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있을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 어린이로서 예수, 혹은 어린이를 위한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물론 저자는 어린이 신학, 즉 하나님이 어린이로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 “성육신” 사건을 보다 실제적이고 실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담론을 제시한 신학자다. 그러나 그가 그런 신학을 전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독교 서적에 등장한 “어린이 예수”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80쪽). 그는 12장 가운데 한 장으로 이 부분을 할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 그의 어린이 신학이 모든 이들에게 충분히 읽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성육신”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겠으나 그리스도가 “어린이”라는 인간 생애의 가장 근원적인 약자의 삶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통해 예수의 정체에 대한 본래적 자리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둘, 그는 기독교를 기독교 안에 가두는 오류를 벗어나고 있다. 저자는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론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신학의 주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심장하다.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단편적인 인상에 머물러 그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20쪽)를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필자는 7장 “생명 예수”에서 치유 사역에 관심을 보이는데 이는 예수가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창조 전체와 인간 전체”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32쪽). 영육이원론을 넘어 실존적 사랑을 지향하는 예수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미래를 진단하고 있다. 셋, 저자는 문화와 그리스도 이원론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자연인” 되심을 강조한다. 심지어 예수의 기적 사건은 초자연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자연과 혼연 일치를 이룬 자”로서 그러한 일을 자연법칙을 깨는 일 없이 일으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178쪽). 물론 이러한 주장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자연과 더 깊이 소통한다는 것이 예수를 더 잘 알게 된다면, 예수를 닮아간다면 하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것이라면 오늘날 일반 대중보다 자연과학자들이 더욱 예수를 잘 따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흥미롭게도 실제로 자연과학자들은 일반인들이 놀라 자빠질만한 기적 같은 일들을 비커 안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옳게 보는 것처럼, 예수는 “자연을 깊이 꿰뚫어보는 남다른 통찰력”(177쪽)의 소유자였으며 그것이 그의 초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면의 무형한 성장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생태적 예수”(165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넷, 11장 “지옥에 내려간 예수”를 통해 구원의 능력과 보편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오늘날 한국의 사도신경에서 삭제된 구문을 한 장을 할애하여 파고들었다는 점은 그 어떤 교리적 불경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담지한 복음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십자가 위 하나님의 부재를 드러내는 예수의 울부짖음이 그것을 듣는 자 뿐 아니라 들을 수 없었던 자들의 가장 깊은 어둠까지 파고들고 계시며, 결국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와 구원의 희망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하나님 중심의 전능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교리라 하겠다. 이 점을 저자는 묵과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 사이, 날숨과 들숨 사이 무중력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

그러므로 서점에 꽂힌 수많은 기독교론 서적과 동일한 무게로 이 책을 가볍게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것이며 도리어 그의 실존적이며 현실적인 신학적 고민에 관심을 두면서도 그의 전체 조직신학에서 어떻게 예수와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가 질문하며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책 한권만으로 모든 기독교론적 질문에 답을 얻을 수는 없다. 설사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론 서적을 한권의 책으로 묶는다 해도 우리의 사상적이며 학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목마름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할 뿐이며(요4:14), 그러하기에 모든 신학의 출발점은 저 많은 우물이 아니라 생수를 건네주시는 예수와의 만남에서 비롯될 따름이다. 이 책의 방향이 바로 그것 이었다! 